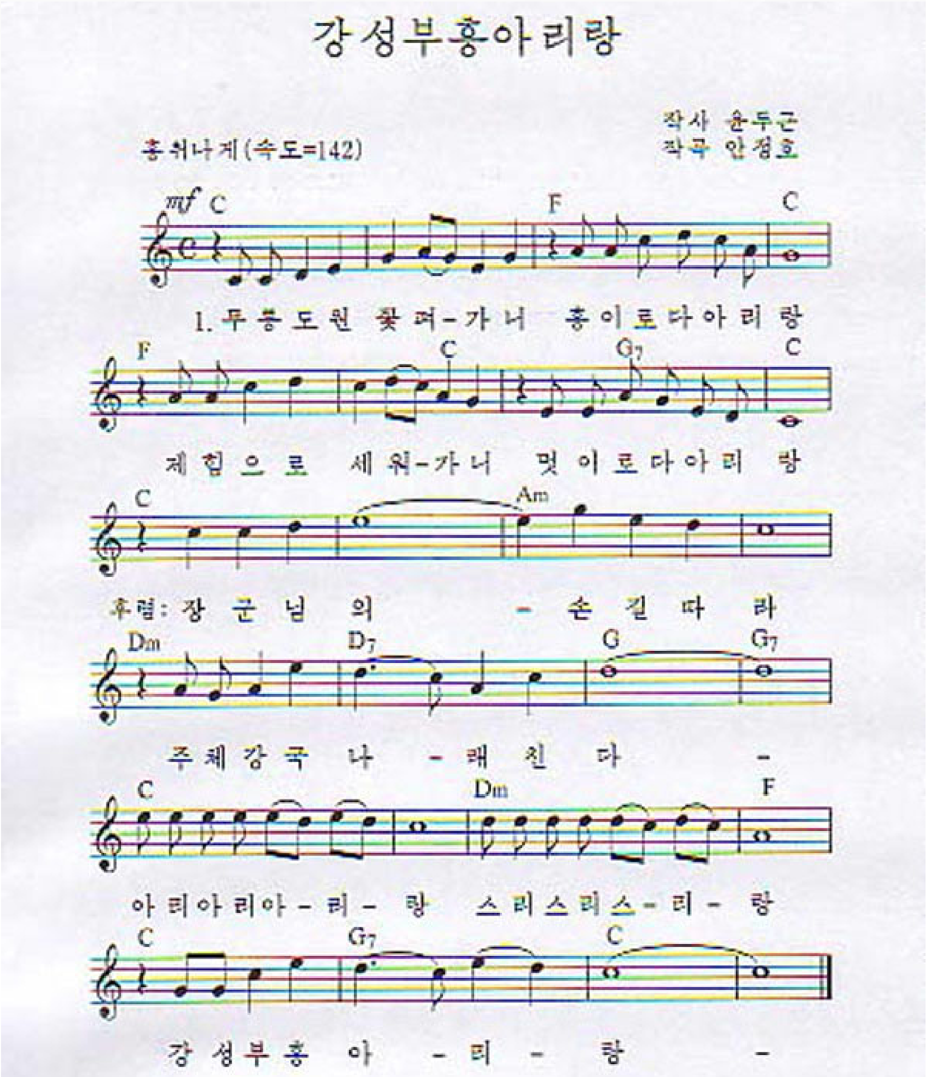
백두산2

음악과 기사

주체91(2002)년 5월 31일

# 더 높이 울려가라 강성부흥아리랑이여




강성대국의 한길로 힘차게 나가는 내나라 강산에 노래가 울립니다. 우리 인민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강성부흥아리랑≫.

이 노래는 신념의 붉은기 높이 역사의 온갖 풍파를 과감히 뚫고 헤치면서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자랑찬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김일성**조선, **김정일**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 끝없는 환희와 낙관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영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습니다.≫**

노래 ≪강성부흥아리랑≫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견인불발의 의지로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돌파한 영웅적 조선인민의 승전가입니다.

노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역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치던 ≪고난의 행군≫을 뜨겁게 돌이켜보게 합니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고도 남았을 ≪고난의 행군≫의 나날, 그 얼마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이 걸음걸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습니까.

적들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떠들어대며 고립압살과 봉쇄책동을 악랄하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로도 그 어떤 봉쇄책동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였습니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높이 들자 붉은기≫ 노래 높이 위대한 장군님 영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역사의 기적을 창조했으며 이 땅위에 융성번영하는 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가져다준 장화를 신고 진펄길을 넘은 것도 아니며 그 누가 선사한 고무배를 타고 험한 강을 건넌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민이 믿은 것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투철한 신념과 증인뿐이였습니다.

중중첩첩 난관이 겹싸일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더욱 굳게 자리잡은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무릉도원을 건설하고야 말려는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떠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흥이고 멋이였습니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길에서 우리의 일심단결은 백배로 다져졌고 나라의 방위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주체의 강국은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신심 드높이 전진해나갔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헤쳐온 고난의 행군길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며 일심단결의 위력과 철벽으로 다져진 조선의 참모습을 노래 ≪강성부흥아리랑≫에 담아 소리높이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은 일심단결입니다. 일심단결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조국의 번영이 있으며 인민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철의 진리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되어 있기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일심의 나라, 강성으로 그 위용 떨쳐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빛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아리랑 산너머 고개넘어 저 멀리 백두산기슭 대홍단골에 가보면 아득히 펼쳐진 포전마다에서 기계농사의 노래소리가 흥겹고 감자눈을 싹틔우는 구수한 땅냄새가 흐뭇하게 가슴에 흘러듭니다.

스리스리랑 강건너 들지나 저기 저 금강산기슭 강원도의 논벌에서부터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드넓은 새 땅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면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이 젖어듭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지난날 눈물의 아리랑속에 풀뿌리바구니를 이고 힘겹게 나들던 그길로 오늘은 양어장에서 건져낸 물고기들과 닭공장들에서 생산한 닭알, 닭고기를 가득 실은 냉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백리청춘과원의 꽃향기가 목메이게 풍겨오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영도밑에 인민경제의 개건,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된 오늘의 자랑찬 현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설움과 원한을 담아 불렀던 눈물의 아리랑. 그러한 민족의 아리랑이 오늘 **김일성**태양민족의 번영과 행복이 활짝 꽃펴나는 **김정일**시대의 새 모습을 담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인민의 승전가로 아리랑민족의 기상을 담은 조선의 새 아리랑으로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군대가 부르면 무적의 힘이 되고 인민이 부르면 승리의 신심에 넘치며 세상사람들이 들으면 부러워 따라 부르고 원수들이 들으면 공포에 떨게 하는 ≪강성부흥아리랑≫은 우리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혁명시대만이 낳을 수 있는 승리의 아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시대를 노래한 ≪강성부흥아리랑≫은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강성대국의 기쁨의 아리랑, 행복의 아리랑, 투쟁의 아리랑입니다.

고난의 행군의 승리의 노래 ≪강성부흥아리랑≫이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어가시는 태양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무궁번영할 **김정일**조선의 기상을 안고 더높이 울려가라!

**2절**
**일심으로 뭉쳤으니 두렴없이 아리랑**
**철벽으로 다졌으니 끄떡없이 아리랑 (후렴)**
**3절**
**태양조선 강해가니 존엄 높아 아리랑**
**태양민족 흥해가니 살기좋아 아리랑 (후렴)**

## 음악과 기사


- 더 높이 울려가라 강성부흥아리랑이여
- 수령님 못잊어 부르는 추억의 노래
- 인민은 믿고 따르네 **김정일**동지
- 조선영화의 얼굴 만점짜리 영화의 화폭을 펼치시어

# 수령님 못잊어 부르는 추억의 노래

재일본조선청년대표들과 환담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사무치게 그리며 재일동포예술인들이 터치는 위인칭송의 노래 푸른 하늘가로 높이 울려갑니다.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눈이 내리면 눈이 내려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 불어 이역에서 사는 동포들을 생각하시며 뜨거운 사랑을 기울여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품을 못잊어 이 봄날에 울려오는 노래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70만 재일동포들을 만경대 한식솔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랑을 가슴 가득 지니고 살도록 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그 사랑을 하나로 이으면 총련의 역사가 되고 애국애족의 역사가 되기에 하늘땅에 차고 넘치는 수령님의 사랑을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어 고마움에 눈시울 적시며 그들이 부르는 노래 격정의 파도되어 물결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꿈결에도 그리운 어버이수령님의 송가를 부르고 부를수록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던 환하신 그 영상이 어려와 목메이는 그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이 되시어 해마다 보고싶다고 불러도 주시고 그들의 소박한 공연을 보시고서는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친어버이의 그 사랑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잊지 않고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더 높이 모시려는 한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하늘가에 메아리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그리는 재일동포들의 마음들을 헤아리시어 수령님 서거후에도 그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수령님 그대로의 육친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셨습니다.

수령님의 친어버이 그 모습이런듯 이해 2월에도 그들의 소박한 공연을 보아주신 장군님께서는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시며 축배잔까지 안겨주시고 잊지 못할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마음속에 그늘한점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누구나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안겨주시며 시련 많고 고난의 찬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장군님의 넓은 품이 있기에 재일동포들은 해외에서도 수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안으며 태양민족의 자랑과 영예를 높이 떨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재일동포예술인들은 공연종목마다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터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행복한 삶은 영원하며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높은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애국의 마음을 담아 싣고 재일동포예술인들의 그리움의 송가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 재일조선인운동강화발전의 앞길을 밝힌 강령적문헌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신 때로부터 7돐이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총련이 결성된 잊을수 없는 나날과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재일동포들이 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내면서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하나하나 평가하여 주시면서 자기 수령,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무한히 충실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에로 확고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총련과 같은 위력한 해외교포조직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며 민족의 영예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한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애국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감에 넘치게 하고 새로운 애국열의로 불 타게 하며 민족적애국투쟁에로 무한히 고무하여 주는 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기본사업방향을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전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틀어 쥐고 수령님께 변함없이 충성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서한에서 해외교포문제의 본질이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심오한 사상에 기초하시여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본사명으로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련이 투쟁강령으로 높이 내걸어야 할 중심과업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 조성된 정세와 자기의 임무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높이 들고 대외선전과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등 총련이 수행해야 할 4대중심과업은 해외교포운동의 본질로 보나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 권리로 보나 가장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총련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광범한 동포대중을 총련의 두리에 묶어 세우고 일군들과 동포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현명한 방도를 안겨 주시였다. 참으로 력사적서한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귀감이시고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위대한 애국로선이며 필승의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위대한 령도의 나날에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의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 주시였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서한과 강령적말씀을 높이 받들고 총련 제19차 전체대회 결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애국운동의 총 진군을 힘차게 벌려 나가고 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 가 새 세대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을 총련조직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총련은 지부와 분회들, 각 계층별 단체들을 통해 동포들과의 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하고 그들속에서 민족성을 지키고 교육문화사업과 동포생활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전환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총련조직을 각계층 동포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그들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대중적인 동포조직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내외반동들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켜내며 제반 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고수와 리행에 조국통일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민족자주의 구호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기 위한 민족대행진에 힘차게 합세해 나가야 할것이다.

21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성스러운 애국애족운동인 재일조선인운동은 그 앞길에 난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강성부강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위력한 총련조직이 있어 언제나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5월 24일(발췌)**

# 인민은 믿고 따르네 김정일동지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가는 우리 인민의 마음 충성의 대하되어 흐릅니다.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매혹의 감정,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의 순결한 마음은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뜨거워지는 충성의 열도로 하여 한없이 설레입니다.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인민의 이 마음 담아서인가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노래가 메아리쳐갑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선군혁명의 길을 함께 걸으며 떨어져 살 수 없는 어버이의 심정을 심장으로 절감한 우리 인민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조국을 수호해나가시는 그토록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시느라 언제 한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

자신은 쪽잠과 줴기밥을 드시면서도 우리 인민이 겪는 시련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인민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걸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 장군님께서 버만리를 조용히 찾으셨던 지난해 여름의 이야기. 그때 누구도 몰랐습니다.

무더운 삼복철의 이른 새벽 꿈결에도 그리던 장군님께서 소문없이 찾아오시어 양어장이며 발전소며 제대군인가족의 살림집까지 일일히 돌아보시고 가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뜻밖에 사랑의 전설을 남기시고 모두들 잘 있으라고 따뜻이 손을 잡아주시며 장군님께서 마을을 떠나실때에야 비로소 아침해가 산마루에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장군님의 사랑의 길위에는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준 한폭의 그림같은 화폭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졌는지 우리 다는 모릅니다.

청천강의 계단식발전소들이며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을 찾으시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이곳 일군들과 인민을 거듭 거듭 치하해주시며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 정리한 황해남도의 드넓은 논벌들과 곳곳에 일떠선 아담한 농촌마을들을 바라보시며 이것이 사회주의전경이라고 여기에서도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있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에게 더좋은 내일을 마련해주시려 울긋불긋 사과알들이 탐스럽게 익은 과일군의 백리청춘과원이며 장쾌하게 쏟아져 내리는 울림폭포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

인민을 믿고 강성대국건설을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애국애족의 마음은 이 땅위에 위대한 사변들과 변혁을 용암처럼 분출시켰습니다.

거센 숨결로 끓어번지는 나남의 기계공업기지를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남의 봉화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힘있게 선언하신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말씀이 천만 심장에 새로운 진군의 불을 달아주었습니다.

진정 시대와 인민의 염원을 한 가슴에 안으시고 강성대국을 향해 전진하는 이 땅에 경이적인 현실을 예고하는 새 세기의 봉화를 치켜드신 우리 장군님의 그 위대한 발기에서 우리는 기어이 이 땅위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 가장 존엄있고 떳떳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며 우리 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사상이 제일이고 우리 장군님 굳건히 다져주신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것을 드팀없는 진리로 새겨 안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 계시기에 이 땅위에 또다시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다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으며 마음은 든든합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강한 폭풍이 불어친대도 끄떡없이 자신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바쳐가며 선군시대를 빛내어 갈 것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는 분**
**그 하늘의 태양은 김정일동지**
**아 - 아 - 우리의 김정일동지**

함흥청년염소목장의 방목공들

함흥청년염소목장의 사료가공실

# 조선영화의 얼굴 만점짜리 영화의 화폭을 펼치시어

민족과 운명 19부중 한 장면

나남의 봉화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대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 노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뜻깊은 시기가 되였습니다.

감회도 새롭고 추억도 깊은 이 역사의 나날을 더듬어 볼수록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과 천재적인 지도밑에 연대와 세기를 넘어 끊임없이 발전해온 주체영화예술의 대화원을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세계적인 대걸작으로 인류문학예술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놓고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날로 발전해온 주체영화예술의 성과사를 끝없는 감회와 격동에 휩싸여 돌이켜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영화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영화예술론≫의 문예사상과 이론를 옳게 구현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심오하고도 철학적인 종자를 쥐고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는 화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공이냐 연공이냐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모대기며 방황하던 김봉준이 연공하는 길만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참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일관하게 그려내고 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의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펼쳐보이면서도 그들이 뿌리깊은 사대와 반공의식을 버리고 민족자주의식을 체현한 새 인간으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생활을 그리는데서도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시기에 걸치는 다양한 생활을 폭넓게 펼쳐보이면서도 영화에서는 그 생활을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와 성장발전과정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무게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각이한 계급계층을 대표하는 인간군상들의 전형을 창조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구성조직에서도 특색이 있는 작품입니다.

민족과 운명 ≪최현덕≫편

석장의 사진을 놓고 주인공 최현덕의 지나온 한생을 집약하여 보여준 것과 조국의 현실을 많이 펼쳐놓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보여준 것을 비롯해서 기발한 착상으로 매 화면들에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를 훌륭히 구현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영화, 연극, 가극예술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높은 수준에서 받아들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사상적 대를 세우는 문제, 인물성격을 전형화하는 문제, 인물들의 극적관계를 설정하고 역사적 사건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 이야기줄거리를 엮어 구성의 대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비롯해서 문학과 연출, 연기, 촬영, 미술, 음악형상도 주체적 문예이론에 토대해서 해결했습니다.

유랑민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탄하듯 사나운 눈보라가 사래치며 ≪아리랑≫의 관현악선율이 흐느끼듯 울리는데 뒤이어 조국땅에 드리운 암흑을 가르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거연히 솟아오르고 그 위에 장군별이 반짝이며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관현악으로 울리는 서경장면.

이 화면은 그야말로 담고 있는 생활과 정서에 있어서나 형상성에 있어서 만점짜리 조선적인 화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폭에서 짙게 풍기는 조선적인 향취로 해서 거대한 정서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조선예술의 새로운 경지, 참다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세계적인 의의와 그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인 해명으로 해서 단연 세계적인 걸작으로 됩니다.

지난 시기 세계문학예술계에서는 주로 모성애에 대한 문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문제, 선과 악에 대한 문제, 도덕적 양심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을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처럼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에 예술적 해답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보살피심속에서 조선영화의 진수로 빛을 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그 사상적 내용과 예술적 형상에서 주체영화예술의 성과들을 빛나게 반영한 나무랄데 없는 세계적인 기념비적 걸작입니다.

오늘도 심오한 철학성과 깊은 정서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와 ≪기러기떼 날으네≫와 함께 우리 모두의 가슴에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다는 생의 천리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서 오늘도 우리 주체영화사와 21세기의 세계문예사를 찬란히 수놓으며 연속편으로 창작돼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이 노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세련된 지도가 낳은 빛나고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밑에 19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영화예술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내놓음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끝없이 추동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상인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의 이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문학예술창작사업을 계속 추동하며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위업수행에로 선도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빛을 뿌릴 것입니다.

민족과 운명 ≪카프작가≫편의 주인공들